**S.W.F.S**

**뉴스 스터디 보고서**

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팀 정보** | 2팀 | **이름** | 최유진 | **날짜** | 2022.05.18 |

|  |  |
| --- | --- |
| **뉴스 제목** | 오픈소스 보안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미국의 조직들 |
| **뉴스 요약** | 오픈소스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내용을 다룬 뉴스이다. 일부 기업들이 이에 필요한 예산을 냈고,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고 한다. 미국에서 오픈소스 강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개발자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. |
| **뉴스 분석** | [미국 기업들의 적극적 자세]  리눅스재단, 오픈소스보안재단을 비롯한 아마존,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 등 37개의 기술 기업들과 단체들이 새로운 보안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. 미국 정부를 필두로 하여 세계적인 IT업체들이 오픈소스를 현상태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.  [소프트웨어 산업 내 전문가들과 정부 요원들 간 2차 서밋] 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의 2차 서밋은 오픈소스의 보안과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, 오픈소스소프트웨어보안동원계획을 세워 10가지 보안 강화 절차를 크게 세 가지 이니셔티브로 묶어서 발표하고 진행할 예정이다.  위의 10가지 계획에는 ‘시큐어 프로그래밍’에 대한 교육과 인증 제도 마련, 소프트웨어 배포판들의 디지털 서명 행위 촉진, 금전적 지원과 보안 도구 제공 등 다양한 방안들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서를 통해 설명했다.  이들의 현재 초점은 개발자로,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고 보안 강화를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지점이다. 이에 따라 시큐어 프로그래밍에 대한 교육과,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 개발이 당면한 과제이다. |
| **용어 정리** | 이니셔티브: 주도권. 발안제  서밋: 회담  오픈 소스: 소스 프로그램이 공개되어 자유롭게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프로그램 |
| **느낀 점** | 미국의 정부와 세계적인 기업들이 함께 오픈소스 보안에 대해 행동하면서 세계적으로 오픈소스 보안에 대한 흐름과 사용할 때 보안을 위한 제약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, 앞으로 어떤 방안을 계획으로 삼아 실행해 나갈 것인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. |
| **궁금한 점** | 오픈소스소프트웨어보안동원계획에 대해 세부적인 항목으로 더 자세하게 조목조목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. |
| **참고 자료** | 뉴스 원본: <https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106823&kind=> |